2021학년도 7월 꽃 피고 봄 오면 모의고사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윤리학은 개인이 지닌 현실적인 도덕을 삶에 대한 자기 경험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 을 : 윤리학은 사회 정의, 환경 문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갑: 윤리학은 도덕 원리의 이론적 근거의 토대를 정립해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도덕적 풍습들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서술해야 한다.
 - ③ 을 :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
 - ④ 을 : 윤리학은 이론적 근거를 배제하여 실천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제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
- 2.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잡: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 각 계층의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자 애쓰지 않는다.
 - 을 :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지 세 계층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전념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각 계층이 적합한 덕목을 실천할 때 이상 국가가 실현한다.
 - ①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덕을 발휘해야 하는가?
 - ② 후천적으로 학습된 도덕적 특성을 비탕으로 직업이 분담되어야 하는가?
 - ③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분 분별은 사라져야 하는가?
 - ④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직업 교환은 장려되어야 하는가?
 - 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는가?
- **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는 양심적 신념 간의 불일치를 줄여 준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면서 양심적인 행위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일부 법률들에 대해 불복종하는 행위이다.
- ②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이지만 위법한 행위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③ 시민 불복종을 통해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 ④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모든 정의의 원칙들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⑤ 시민 불복종의 결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수준이 증진될 수 있다.

-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최근 죽음에 대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죽음의 판단 기준에 대한 숙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는 인간 생명과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을: 동의합니다. 다만 죽음의 기준을 뇌의 활동 정지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주요한 기능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전히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의 기준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갑: 아납니다. 뇌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생명체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의 중요도가 높고, 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시람을 살아 있는 시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을: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그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판단할 오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뇌의 가능 정지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① 죽음의 판단 기준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가?
 - ② 심폐사와 달리 뇌사의 기준은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는가?
 - ③ 죽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는가?
 - ④ 뇌 기능의 정지 상태를 죽음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⑤ 죽음과 관련한 문제들은 죽음 판단 기준에 대한 숙고를 촉진했는가?
-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은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
 - 을 : 어떠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는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행복과 불행의 양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 큰 행위만이 도덕적이다.

-<보 기>-

- 그. 갑 :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들 중에서 일부는 공리가 증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ㄴ. 을 : 자신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이다.
- 드. 을: 행위의 도덕성과 행위의 동기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존재하지 않는다.
- 리. 갑, 을 : 개인의 준칙이 행위의 동기가 된 행위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① ¬, ∟
- ② 7, ⊏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의 부정적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의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 유리들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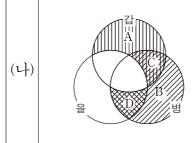
- ㄱ.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주장한다.
- 다.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 긴의 호혜성을 중심으로 책임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① 7, L ② 7, C ③ L, C ④ L, E ⑤ C, E
-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모든 시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을 : 분배에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분배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분배의 산물들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배의 원리는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와는 대조적이다.
 - ① 갑: 사유 재산권은 사유 재산과는 달리 모두에게 평등히 분배되어야 한다.
 - ② 갑 :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국기는 정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을 : 분배의 절치와 결과 모두 분배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 ④ 을 : 정형적 분배의 원리는 개인들의 소유 권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 ⑤ 갑, 을: 개인들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난다.
- 8.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표현의 자유 행사는 타인의 사생활 노출이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을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 ①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의 보장과 양립 불가능한 기본권인가?
- ③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④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과 달리 표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가?
- 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허용될 수 없는가?

- **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선(善)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는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향상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을 :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간성 (가) 실현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정언 명령을 토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병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점 : 갑만의 입장 B : 병만의 입장 C : 갑, 을의 공통 입장

D :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 그. A: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나. B: 의무론의 차원에서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C: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배려도 인간의 의무로 성립될 수 있다.D: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7. ∟
- ② ∟, ⊏
- ③ ⊏, ⊒

- ④ ᄀ, ㄴ, ㄷ
- ⑤ ㄱ, ㄷ, ㄹ
- 10.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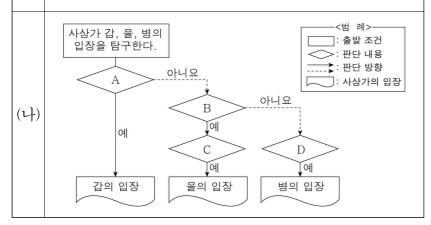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 <사례> --

고등학생 A는 하교 도중에 무거운 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학원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A는 학원으로 곧바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힘들어보이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짐이 무거운 정도에 따라 도움 여부가 달라짐을 명심하세요.
- ② 학원을 가지 않기 위해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 ③ 할머니를 돕는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세요.
- ④ 할머니가 느낄 고통을 연민하여 자비(慈悲)의 정신을 실천하세요.
- ⑤ 할머니를 돕는 것보다 학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 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관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르다.
- 을 :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원조 여부가 달라진다.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이다.
- 병: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렇다고 하여금 원조 과정에서 강제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 기>-

□. A: 원조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자선 행위인가? □. B: 빈민의 존재 사실은 원조의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 C: 원조를 통해 국가 간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해소해야 하는가? □. D: 질서정연하지 못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시행해야 하는가?

- ① 7, ∟
- ② ㄱ, ㄹ
- ③ ⊏, ⊒

- ④ ¬, ∟, ⊏
- 。 ⑤ L, E, E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는 논증적 대화의 합의형성적 힘에 대한 근본적 경험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논증적 대화에서 여러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주관적일 뿐인 자신들의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따라 수궁한 확신 덕택에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과 함께 상호 주관성을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 ① 담론 참여자들을 타인의 의견에 거부 의사를 제시할 수 없다.
- ② 담론 참여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③ 담론의 결과로 다수의 지지를 얻은 보편적 규범이 도출되어야 한다.
- ④ 담론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성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들은 토의의 결과로 합의된 시항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난다.

- **13**. (가)~(다)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성의 진정한 가치는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의 형성이다.
 - (나)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성적 관계에서 자유의사 이상의 가치는 고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다)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며,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가): 성적 관계의 주된 목적은 사랑을 통한 인격적 가치의 고양이다.
- ② (나): 성의 본질은 출산을 통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 ③ (다) : 성을 결혼과 결부시켜 그 정당성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
- ④ (가), (나): 사랑의 유무는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 ⑤ (나), (다): 오직 쾌락만을 위한 성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다.
-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정치의 목적과 본질은 어느 정도는 인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배를 뜻한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인간 행위의 분명한 영역으로서 정치의 구성 원칙이자 행위의 원동력, 목적의 본질이다.
 - 을 :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관계에서도 상호 원조와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 ① 갑: 국익과 도덕성이 상충할 때 도덕성의 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
- ② 갑: 국제 정치의 최고 목적은 국제 관계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 ③ 을 : 각 국가가 보유한 상비군 간의 힘의 균형은 평화에 기여한다.
- ④ 을 : 모든 전쟁이 중단됨으로써 평화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
- ⑤ 갑, 을 : 평화를 위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규범을 규정해야 한다.
-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一<보 기>一

- ㄱ. 모든 도덕적 개인들이 모인 집단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 ㄴ. 사회적 강제력은 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 ㄷ. 집단이 지닌 힘의 비율은 집단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 ㄹ. 개인은 오직 개인의 도덕성에만 영향을 주는 소극적인 존재이다.
- ① 7, L ② 7, T ③ L, T ④ L, Z ⑤ T, Z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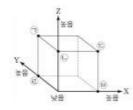
(プト)

-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 을 :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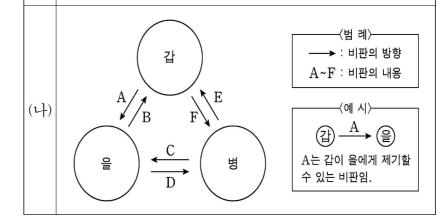
□. 갑: 미와 도덕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갑: 미적 즐거움은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 을: 예술은 도덕이나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갑, 을: 예술은 자율성을 비탕으로 도덕적 내용을 권장해야 한다.

- ① 7, L ② 7, T ③ L, T ④ L, Z ⑤ T, Z
-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신체는 영혼이 진정한 진리와 인식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 가능한 한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 을 :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① 갑: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지식 탐구 활동이 모두 정지된다.
- ② 갑:죽음은 육체가 영혼의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다.
- ③ 을 : 죽음은 모였던 원자들이 소멸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 ④ 을 : 죽음은 감각 기관의 활동 정지를 유발하므로 경험될 수 없다.
- ⑤ 갑, 을 :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P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동물 실험은 동물의 느낄 고통의 양을 간과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나): 동물 실험은 현 인류에게 중요한 의학적 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험이 만들어 내는 고통보다 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 X: 동물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편익을 중시하는 정도
- Y: 동물이 느낄 고통을 헤어려 동물을 존중하는 정도
- Z: 동물 실험이 의학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는 정도

-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을 :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 병 :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멈추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범죄 의지를 억제시킬 수 있다.



- ① A: 사회 계약론을 근거로 사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형벌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③ C: 형벌은 공리의 원리를 배제하여 그 정당성을 논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시민들은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국기에 양도하지 않았음을 간과한다.
- ⑤ F: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이주민들은 출신국의 언어, 사회적 관습, 문화 등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착하려는 나라의 내국인과 같이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 을: 이주민들의 문화와 정착하고자 하는 나라의 기존 문화는 동등한 자격으로 공존해야 한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에 대한 구분은 사회적 결속의 약화를 촉진한다.
- ◎ 학생 답안
-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③<u>주류 사회의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주민들의 문화는 기존 사회의 문화에 비해 존중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을은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②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동등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②문화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u>
- \bigcirc
- 2 L
- 3 🗉
- **4 2**
- (5) (D)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